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김춘삼동지, 박영식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향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103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방역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 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 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생전의 모습

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군혁명의 제일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침으로써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전진미담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에 이끄시어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 번영을 위한 만년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대회장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모형과 《태양절경축》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김정해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웅들, 집권자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일군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윤길상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광병들, 평양 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혁명렬사유가족들과 로력혁신

자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 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중앙보고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의지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회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의 탄생 103돐이 되는 2015년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그이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세계사주화위업실현을 위한 전로정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과 바치신 커다란 로고에 대하여 감회깊이 들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각하께와 그리고 친근한 귀국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와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친근한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기회에 수리아아랍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협조관계가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5년 4월 13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과 그이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3돐에 즈음하여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14일 따맘 쏘레이

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네발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일행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들을 네발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인 수비쉬 까지 쉬에스타 단장과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

산협회 업니고비도지부 책임자인 프. 민즈바드가르 단장, 워린 굽 마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과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이 공동명의로 선물을 드리였다.

본사기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명판준공식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써주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명판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에는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일룡경공업성,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력혁신자,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노래주악으로 준공식이 시작되었다.

준공사를 지배한 민일홍이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력

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써주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명판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어머니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고 공장에 백두산대장군의 존함을 모시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몸소 합숙건설의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로동당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하루빨리 일떠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으며 합숙에서 생활하게 될 로동자들을 위해 문화용품까지

보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친필로 쓰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라는 명판까지 종업원들에게 안겨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주요같은 글밭에는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향일의 념정영을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념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생활향상의 주요전구, 사회주의후조건의 제1선참호에서 시대의 척후병이 되기를 바라시는 천출위인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깃들여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말씀 관철을 위한 총동력을 힘있게 벌려 공장이 맑은 천생산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에서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다

그치고 대종적기술혁신운동으로 증진의 동력을 높이 올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옷감들이 더 많이 차려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전진과학기술신화방침을 받들고 과학기술지식 보급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잘하여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화합을 위한 사업을 인관성 있게 틀어쥐고 공장구내를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일함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에 커다란 로력적성물을 안고 몇몇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